

‘포항 징크스’도 깬다



광주 FC가 27일 포항 스틸러스를 상대로 6경기 연속 무패에 도전한다. '포항 징크스 깨기'이기도 하다. 1무4패의 수원전 열세를 깨고 창단 후 첫 승을 거뒀던 광주가 이번에는 포항전 첫승을 겨냥한다. <광주 FC 제공>



광주 FC 내일 원정 역대 전적 1승도 못거둬

패스 축구로 승부...김호남 복귀 '천군만마'

광주 FC가 스틸야드에서 치열한 패스 싸움을 벌인다. 광주 FC가 27일 오후 7시 포항 스틸야드에서 포항 스틸러스와의 K리그 클래식 18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5경기 연속 무패(3승2무)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앞선 성남과의 경기에서는 송승민의 프로 데뷔골이 나왔지만 마지막 5분을 지키지 못하면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아쉬움이 남는 무승부였

지만 광주는 꾸준히 승점을 더하면서 6승6무5패(승점 24)로 6위 자리에 올라 있다. 포항은 7승5무5패(승점 26)를 기록하며 3위에 랭크됐다. 승점 2점차로 추격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두 팀의 자리가 바뀔 수도 있다. 이번 경기는 '포항 징크스'를 깨기 위한 광주의 도전이다. 광주는 창단 이후 한 번도 포항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온 적이 없다. 역대 전적에서 2무3

패로 열세를 보이고 있고, 2011년에는 안방에서 1-5 대패를 당하기도 했다. 이겨보지 못한 어려운 상대지만 자신감은 넘친다. 광주는 점유율 축구와 끈끈한 팀워크로 무패 행진을 하면서 클래식 무대에서 순항을 하고 있다. 또 지난 15라운드 경기에서는 역대 전적에서 1무4패를 기록했던 수원을 상대로 1-0 승리까지 거두며 '수원 징크스'를 깬다. 한껏 달아오른 분위기지만 아쉬운 전력 누수는 있다. 경고 누적으로 미드필더 여름과 수비수 김영빈이 스틸야드를 밟지 못한다. 높아진 기온과 계속된 원정 일정으로 인해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도 늘었다. 그래도 반가운 복귀가 기다리고 있다. 수원전에서 부상을 입었던 김호남이 팀 훈련

에 합류를 하는 등 복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김호남이 돌아와 준다면 공격의 무게와 스피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송승민의 자신감도 새로운 전력이다. 송승민은 성남과의 경기에서 골망을 흔들면서 프로 데뷔골을 장식했다. 골 침묵을 깨면서 마음의 짐을 벗어낸 송승민의 움직임이 기대된다. 무엇보다 두 팀의 패스 대결이 이번 승부의 관심사다. 광주와 포항 모두 짧은 패스를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팀이다. '라인 브레이크'로 통하는 김승대가 광주가 경계해야 할 1순위 선수다. 상대 수비진을 흔드는 김승대의 움직임을 어떻게 막느냐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체육중, 두바퀴로 전국 제패

KBS배 전국사이클 금5·은2 종합우승...김민정 3관왕

광주체육중학교(교장 김성남) 사이클부가 KBS배 전국사이클대회에서 금메달 5개를 휩쓸며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김민정(2년)이 3관왕 박서진(0)과 황소진(1년)은 2관왕에 올랐다. 광주체육중은 지난 21~24일 강원도 양양밸로드롬에서 열린 '2015 KBS 양양 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5개와 은메달 2개를 수확, 종합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김민정은 개인추발1km와 단체추발2km, 스크래치에서 정상에 오르며 3관왕을 차지했다. 개인추발1km에서 1분22초032로 이슬(전북체중, 1분23초782)과 이하란(덕산중, 1분26초633)을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 임은서·박서진·황소진·서지연·윤수림과 함께 출전한 단체추발2km에서도 2분44초379로 가장 앞섰다. 스크래치에서는 팀 동료인 박서진(2년)을 따돌리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3관왕을 달성하며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박서진은 200m기록종목에서 12초503으로 대회신기록을 갈아치우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해 하지는(계산여중)이 세운 12초632의 종전 기록을 0.129초 앞당겼다. 황소진(1년)은 500m 독주에서 38초496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땀고, 300m 기록종목에서는 12초505의 대회신기록으로 갈아치웠지만, 아쉽게 팀 동료인 박서진에게 간발의 차로 뒤지며 은메달에 그쳤다. 하지만 황소진은 이번 대회에서 금 2개, 은 1개를 수확해 최우수 신인상의 영예를 안았다. 황소진은 사이클 입문 석달만인 지난 5월 전국 최고 대회인 소년체전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해 '사이클 신동'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158cm·53kg의 군더더기 없는 다부진 체격으로 순



KBS 양양 전국사이클대회에서 여중부 종합우승을 차지한 광주체육중(가운데) 등 수상자들이 시상대에 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체육중 사이클팀 제공>

발력과 근력, 심폐지구력이 좋다. 특히, 초등학교 때부터 보드를 즐겨 균형감이 탁월하고, 사이클 기술인 조정술과 회전력(코너에서 속도가 줄지 않게 페달을 돌리는 것)이 뛰어나다.

지난해 7월 창단한 광주체육중 사이클부는 1년도 안돼 제3회 대통령기 종합우승에 이어 전국소년체전 등 전국 대회를 휩쓸며 전국 최강으로 우뚝 섰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학강초 동우회장기 우승

9월 전국야구대회 출전

광주 학강초가 제22회 광주야구인 동우회장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우승컵을 차지했다. 학강초는 24일 광주 분당리야구장에서 열린 광주야구인 동우회장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결승에서 화정초를 14-11로 꺾으면서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학강초는 지난 22일 막이 오른 이번 대회 첫 경기에서 송정동초를 20-6, 4회 콜드승으로 제압한 뒤 서립초를 6-1로 꺾으며 결승에 진출했었다.

우승팀이 된 학강초는 준우승팀인 화정초와 오는 9월에 열리는 제45회 회장기 전국초등야구대회에 출전한다. 지난해 회장기 전국초등야구대회 우승팀인 송정동초도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대회에 참가한다.

<시상내역>

▲우승 : 학강초 ▲준우승 : 화정초 ▲최우수선수상 : 김복원(학강초)▲우수투수상 : 김환(학강초)▲타격상 : 김관성(학강초·0.857)▲최다도루상 : 윤도현(학강초·5개)▲최다타점상 : 정지태(학강초·8타점)▲감투상 : 문동주(학강초)▲미기상 : 김도영(대성초) ▲감독상 : 최태영(학강초) ▲지도상 : 이만(학강초 야구부장)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맥주잔 폭행' 물의

대한유도회장 자진 사퇴

최근 산하 연맹 회장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남종현 대한유도회장이 회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대한유도회는 25일 "남종현 회장이 이날 사무국으로 대리인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직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로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유도회는 대한체육회에 회장 사임을 보고하고 김진도(경북유도회 회장) 부회장 직무대행 승인 요청 문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남 회장은 지난 2013년 4월 대한유도회장에 오른 이후 2년 2개월여 만에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남 회장이 회장직을 물러난 이유는 최근 불거진 폭행 사건 때문이다.

남 회장은 지난 19일 강원도 철원군에서 열린 '2015년 전국실업유도회대전' 첫날 경기를 마치고 실업유도연맹 관계자와 철원 지역 관내 인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자신이 운영하는 ㈜그레미 공장 연회장에서 열린 만찬 자리에서 산하 중고연맹회장인 A씨를 향해 맥주잔을 던졌다.

맥주잔에 얼굴을 맞은 A씨는 치아 1개가 부러지고 인종 부위가 심하게 찢어져 상처 봉합수술을 받은 뒤 입원했고, 남 회장은 폭력 행위로 고소됐다.

남 회장의 폭력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한유도회 대의원들은 회장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남 회장은 사건 발생 3일 만에 스스로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남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대한유도회는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차기 회장선거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남 회장의 잔여 임기(2007년 1월까지)가 1년 이상 남아 있어 대한유도회는 60일 이내에 차기 회장선거를 해야 한다. <연합뉴스>

110억원의 주인공은?

브리티시 오픈 총상금 '역대 최대'

오는 7월 열리는 시즌 세 번째 메이저골프대회 브리티시오픈(공식 대회명 디오핀)의 총상금이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대회를 주최하는 R&A는 올해 대회 총상금을 지난해보다 90만 파운드 오른 630만 파운드(약 110억3000만원)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승 상금도 지난해보다 17만5000파운드(약 20억1000만원)가 됐다.

이번 대회는 7월 16일부터 나흘간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에서 열린다. <연합뉴스>